

온천·차집·첨단발열잠바...

# 중경, 한파 속 '따뜻한 경제' 열기 후끈



지난 11일, 중경시 남창구 산양평 카르스트 국가생태공원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관광객들. / 신화통신

추운 날씨가 이어지면서 따뜻함을 찾는 소비 성향이 짙어지고 있다. 중경시 파남구의 야외 온천에 사람들이 대거 모여드는 것도 이 같은 현상 중 하나다. 한파 속 야외 기온은 영하권이지만 파남구의 천연 온천수의 수온은 40도가량을 유지하고 있다. 파남구 남천공원 매니저 랑소금은 "중경의 온천수 매장량은 5억 6,000만톤 이상"이라며 "일부 온천에서는 새로운 소비 씨나리오를 적용해 현지인과 관광객 모두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다."고 부연했다. "다양한 온천탕이 늘었습니다." 중경시 강북구 주민 진려의 말이다. 파남구는 특색 있는 온천 풀장과 엔터테인먼트를 도입해 고객들의 여러 수요를 만족시키고 있다. 일부 풀장에는 목의 한기를 없애는 것으로 알려진 전통 중약재가 함유되어 있으며 주말 온천 잠바 수업은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에게 인기다. 랑소금은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남천공원을 찾은 관광객은 전월 대비 95% 급증해 하루 평균 1,000명에 달했다."고 밝혔다.

한편 따뜻한 음식을 찾는 사람들도 늘고 있다. 최근 수년간 화로에 둘러앉아 차를 끓여 마시는 것이 유행하고



지난해 12월 11일, 중경시 북배구 문성촌의 한 민박집에서 화로에 끓이는 차를 즐기고 있는 관광객들. / 신화통신

있다. 특히 소셜미디어(SNS)를 리용하는 젊은층에서 인기다. 숯폼 플랫폼 틱톡(抖音)에서는 '화로에 끓이는 차'(围炉煮茶)라는 해시태그가 달린 동영상 조회수가 약 146억회를 기록하고 있다.

중경시 투중구의 산성패(山城坝) 차집에서도 사람들이 화로가에서 차를 마시며 간식을 구워먹는다.

차집 직원 진흔격은 "가게는 전통문화적 요소도 추가로 도입했다."면서 "고객들은 사천 전통극이나 공부(功夫)차 공연을 관람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울후(二胡)나 비파 등 전통 악기 공연도 감상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겨울철이 되면서 전국에서 찾아오는 방문객이 급증하고 있다고 말했다. 주말과 휴일은 항상 관광객으로 붐비는데 하루 평균 1,000명 가까이 손님이 이곳을 찾고 있다.

첨단기술 제품도 추운 겨울 보온에 한몫하고 있다. 스포츠 브랜드 안타(安踏)는 온도 조절 기능이 탑재된 잠바를 출시했다. 해당 잠바는 보조배터리가 내장되어 잠바 안의 온도를 37도 이상으로 높일 수 있다.

안타 매장의 한 매니저는 "해당 잠바가 로인, 야외 작업자 등 보온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안성맞춤이다."고 소개하면서 잠바 출시 후 한달 안에 10벌 이상이 팔렸다고 덧붙였다.

첨단전기히터 판매량도 급증하고 있다. 특히 그래핀(石墨烯) 난방 기술을 특징으로 하는 플래그십 전기히터가 주목받고 있다.

중경시 투중구 대평시대(大坪时代) 물의 가전제품 매장 매니저 장경은 해당 제품은 난방 효율이 더 높을뿐더러 초음파 가습기 기능도 있다면서 "더욱 스마트하고 첨단화된 가전제품을 구매하려는 소비 성향이 강해지고 있다."고 부연했다.

지난해 해당 점포의 전기히터 판매량은 전년 대비 32% 증가했다. / 신화통신

## 북경, 올 상반기 인간형 로봇 마라톤 개최



2024 북경 역장 하프 마라톤 대회에 등장한 인간형 로봇 '천공(天工)' / 신화통신

인간형 로봇이 20킬로미터 넘는 하프 마라톤을 완주할 수 있을까?

지난 18일, 북경 경제기술개발구는 올해 상반기 2025 북경 역장(亦庄) 하프 마라톤 기간 세계 최초 인간형 로봇 하프 마라톤을 함께 개최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이번 대회에는 20개 이상의 인간형 로봇 기업 대표팀이 참가할 예정이다. 인간형 로봇은 20여키로미터에 걸쳐 랑수하(凉水河)를 따라 달리게 된다.

이번 하프 마라톤에는 글로벌 로봇 기업, 연구기관, 로봇 클럽, 고등교육기관 등의 인간형 로봇을 초청할 계획이다. 참가 로봇은 사람의 외형과 이족 보행이나 달리기 등 동작을 취할 수 있는 기계적 구조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바퀴형 구조는 제외된다. 키는 0.5~2미터 사이, 고관절에서 발바닥까지 길이는 0.45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수동 원격 제어(반자동 포함)나 완전 자동 제어를 채택할 수 있으며 배터리는

대회 도중 교체가 가능하다.

로봇 마라톤 참가 기업에는 1, 2, 3 등상을 비롯해 완주상, 최고지구력상, 최고속도상, 최고인기상 등이 수여된다.

북경에서 열리는 마라톤에 인간형 로봇이 참가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24 북경 역장 하프 마라톤에서 로봇 '천공(天工)'이 출발선과 결승선에서 선수들을 응원하며 화제가 됐다.

북경은 중국의 주요 로봇산업 집결지다. 현재 북경 경제기술개발구에는 핵심 부품, 완제품, 응용 등 전체 로봇산업사슬을 아우르는 로봇 생태계 기업 140여개가 입주해 있다. 생산액은 100억원에 육박한다.

북경 경제기술개발구 관계자는 이번 대회를 통해 힘을 모으고 인재를 모아 EAI 최첨단 기술과 인간형 제품의 산업화를 앞당기고 일류의 혁신생태를 육성하여 인간형 로봇 산업의 혁신 발전을 전력으로 추진할 것이라 밝혔다. / 신화통신

## 상해, '실크로드 전자상거래' 행사 개최

### 소비 확대에 강한 동력 제공

'실크로드 전자상거래' 행사가 22일 상해에서 열렸다. 상무부가 최초로 주최한 이번 행사는 중국 전통문화 요소를 결합한 20개의 다양한 온라인·오프라인 소비 촉진 활동을 선보이며 소비 진작에 강한 동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행사에서는 국내 주요 전자상거래 플랫폼, 라이브 전자상거래기, 브랜드 기업 등을 조직, 특별 판매 부스와 타임세일을 마련해 약 1만여종의 우수 제품들을 전시, 판매함으로써 각 소비자들은 집안에서 전세계의 제품을 구매하고 실크로드 전자상거래 파트너 국가에서 우수한 상품과 서비스를 누릴 수 있다.

또한 무비자 정책 시행과 결합해 해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음력설 문화관광 코스를 출시했다. 임경 관광객의 간편 결제, 수하물 보관, 다국어 메뉴 등 편리화 조치를 최적화하여 보다 많은 외국인 관광객들을 끌어들이겠다는 계획이다.

이번 행사에서는 주요 전자상거래 플랫폼의 '해외 진출'을 적극 지원



한다. 전자상거래 플랫폼내 '국풍(国风) 특색', '해의 년간 히트 상품', '해의 특색 품목' 등 특별 코너를 마련해 200~300종의 히트 상품을 선별하고 '뱀'에 맞춘 특색 있는 음력설 용품, 무형문화유산 수공예품 및 로자호(老字号) 상품을 판매한다. 해외 소비자들은 음력설 기간에 해당 플랫폼에서 마음에 드는 중국산 제품을 편리하게 구매할 수 있다.

상해 화원 부시장은 국제 소비 중심 도시 및 '실크로드 전자상거래' 협력 선도 지역이라는 장점을 발휘해 경제·무역 협력을 강화하고 글로벌 우수 상품을 공유하며 시장 기회를 함께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 신화통신

## 하북, 생산중 강철기업 전부 환경보호실적 A급 도달

일전 하북성생태환경성이 소집한 '강철 등 중점 업종 기업 환경보호실적 A급 달성 추진' 소식공개회에서 알아본 데 따르면 하북성 55개 생산중 강철기업이 모두 환경보호실적 A급에 도달함으로써 생산중 강철기업의 전면적인 A급 달성을 실현했다.

최근년간 하북은 강철 등 중점 업종 기업의 환경보호실적 A급 달성을 추진하고 전통산업의 전환과 격상을 추동해왔다.

A급 달성은 무엇을 가져왔는가? 철물기 강판으로 변하는 데 단 7분이 걸린다! 한단(邯鄲) 무연시에 위치한 하북태항강철그룹유한회사는 초단공정압연기술로 가열로의 가열 등 전통적인 절차를 생략하여

에너지 소모를 40%, 배출을 70% 감소하고 또 0.7밀리미터의 좋은 강철을 생산하고 있다.

전면적인 A급 달성은 녹색 전환과 산업의 격상을 이끌었다. 2024년 12월, 태항강철은 전면적으로 A급 달성 목표를 실현했는데 새로 개발한 20여가지 품종 강철의 판매액이 회사 총판매액의 50% 이상을 차지했다. 초보적인 계산에 따르면 하북성 강철기업들이 전면적으로 A급을 달성하면 오염물 배출을 30% 이상 줄일 수 있다.

최근년간 환경보호실적 A급 달성은 폭스, 건축도자기 등 7개 중점 업종으로 확장되었고 환경보호실적 A급을 달성한 기업은 138개에 달했다. / 인민넷-조문판

## 귀주, 호박 재배 수익 짹짹... 한국 소비자 덕분?

호박설기, 호박죽 등 한국에서 호박은 사람들이 즐겨 먹는 채소다. 하지만 한국에서 소비되는 호박의 대부분이 중국에서 생산된다.

"우리 회사에서 생산한 말린 호박이나 고추 등 채소의 경우 한국, 동남아 등지에서 안정적인 공급 시장이 형성되었다." 귀주성 직금현 농요농업개발회사 중생 회장

귀주성 직금현 농요농업개발회사 생산작업장에서 호박 세척이 한창이다.



귀주성 직금현 농요농업개발회사 생산작업장에서 호박 세척이 한창이다.

7,500톤, 말린 채소, 버섯 3,000톤을 생산한다. 생호박은 주로 국내 대형 1급 도매시장에 판매되고 호박 가공품은 한국으로, 생호박 등 채소는 웰남, 타이, 아랍중동국연방 등으로 수출된다.

농요농업개발회사를 필두로 호박 산업 규모가 점차 확대되고 있다. 회

사는 귀주성 직금현, 송도현, 금사현 등 10여개 현(구)에서 호박을 주문 재배해 현지 농장의 표준화 재배, 규모화 운영을 실현했다. 특히 직금현의 경우 매년 10만톤 이상을 안정적으로 생산해 3만여명의 소득 증대까지 이끌었다.

농사 경력 4년 차인 '신입농부' 조

틈(27세)의 재배기지는 직금현 남양항 서장촌에 위치해있다. 그는 원래 고추를 재배했는데 2023년에 시범 재배로 키운 호박의 수익이 짹짹하자 2024년에는 22만평방미터의 기지 전체에 호박을 심었다.

중생에 따르면 협력 재배 농가의 우려를 불식시키고자 기업과 농가는 호박 재배 사업 컨소시엄을 구축했다. 재배기술 지도, 연수 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재배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 해결을 지원해 생산성, 품질 향상을 이끌었다.

회사는 호박 재배 면적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동시에 스마트 창고, 분말 가공 생산라인을 건설하여 채소 신선 보관, 정밀가공 등 산업사슬을 점차 완비해나갔다.

한편 수출품도 초기의 호박 가공품 하나에서 호박, 고추, 도마도, 감자 등 농부산물로 품목이 다양해졌다. 수출시장도 한국뿐만 아니라 웰남, 타이, 인도네시아 등 국가로 확대됐다.

올해 농요농업개발회사는 호박 주문 재배 면적을 확대해 호박산업의 규모를 더욱 키운다는 계획이다. / 신화통신

## 신강, 지난해 국내 면화 시장 점유율 92.2%

### 올해도 산업 육성에 박차

신강위글자치구가 올해 면화산업 육성에 나설 계획이다.

지난해 신강의 면화 생산량은 568만톤을 넘어 전국의 92.2%를 차지했다.

19일, 신강위글자치구 아이얼런 투니야즈 주석은 자치구 인민대표대회

회의에서 올해 신강지역 면화 생산량을 500만톤 이상으로 유지하고 국가 우수 면화기지로 발전시키며 섬유·의류 산업사슬을 확대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보고에 따르면 2024년 신강 면화 및 섬유·의류 산업 생산액은 2,200억원에 달하고 100만여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해주었다.

지난해 8월, 신강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미국 제재에 대응하고 섬유·의류 기업을 포함한 제재 대상 기업 및 관련 산업의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결의안을 통과했다.

아이얼런 투니야즈 주석은 "해외 제재에 대한 대응 도구를 확충하고 미국 제재 대상 기업, 산업사슬 핵심 기업, 중소·형세 기업에 대한 정책 지원을

강화하여 산업·공급 사슬의 안보를 수호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강은 면화 재배에 적합한 천혜의 기후와 지리적 요건을 가지고 있다.

신강면화협회에 따르면 지역 면화산업의 기계화·스마트화 수준이 높아지면서 면화 재배는 100% 기계화를 실현했으며 기계화 수확률도 약 90%에 이르렀다. / 신화통신